

# 개업수의사가 본 日本(6)

日本獸醫放射線學研究會)

趙 俊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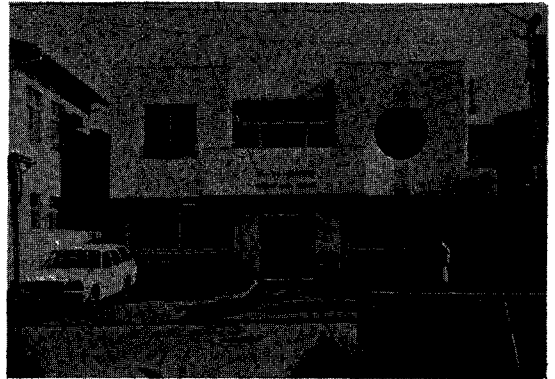
清雲家畜病院

히메지에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적인 성이 있는데 그 이름은 시라사기성(白鷺城)이다. 성전체가 흰색인 천수각은 그간 관광용으로 곳곳에 새로 세워졌던 天守閣과는 판이한 풍경이다. 또 이곳에서는 어렵지않게 세도나이카이의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가 있다.

히메지는 이웃에 고오베항과 오사가항을 가지고 있어 교통이 편리해서 최근 히메지근처에도 많은 공장(방직계통)이 생겨서 이곳 땅값은 나날이 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자기농토를 많이 소유하였던 지주들은 벼락부자가 되어 개업수의사간에는 새로운 시설을 가진 동물병원을 건축하는 붐이 생겼으며 좀 여유가 있는 원장들은 개업수의사로써 평생 소원인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며 또한 효율적인 동물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주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동물병원 시설을 보기 위해 몇개월씩 긴 여행을 하고 와서 국내 선배의 지도로 순미국식 스타일인 깨끗하고 각 과별로 방이 독립된 병원을 짓고 또한 중요 의료기제도 미국 유명메이카에서 직접수입하여 장치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는 땅만 있으면 이 땅을담보로 하여 병원을 지을수 있는 돈을 충분히 또 쉽게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을 수가 있다.수의사면허 하나로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로히 의상거래할 수



1979. 9. 8 · 12:00

히메지의 바구레動物病院全景

있으니수의사가 슬기만 갖추면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은 동물병원을 가질수 있으며 바쁜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그룹활동도 하고 비싼책도 사보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개업年祖가 높더라도 공부를 안하곤 못배긴다. 공부나 연구를 하는데도 혼자 힘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끼리끼리 그룹을 만든다거나 세미나나 강습회에 참석은 물론 임상별로 일가견을 가진 근면한 선배님이나 대학교수 혹은보건의료연구원 동물원수의사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갖이고 임상에 종사하고 있음은 부러운 일



1979.9.8.2...00  
 姫路기릉 動物病院  
 獸醫眼科專門病院으로 뒤에 보이는 手  
 術室이 眼科專門 手術室  
 우로부터 新田院長 筆者 朝會院長  
 Dr. 原과 金永政원장

이었다

히메지의 동물병원은 소개하기 전에 일본수의방사선학연구회의 전무이사인 松原 哲舟선생을 소개해야겠다.

현재 방사선학연구회장으로 있는 松原선생은 사진에서 보는 모습과 같이 히피풍의 장발에 콧수염 턱수염을 기른 40년초의 악이 없고 정열적인 눈을 가진 섬세한 감정을 가진 장년 신사로서 미국인 부인 사이에는 예쁜 따님이 한분있다.

당시 일본수의방사선학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加藤 元선생은 專專에서도 유명한 개업수의사이며 일본동물병원협회(JAHA) 회장직도 겸해서 맡고 있으며 북해도대학졸업후 일시 상야동물원에 근무한바 있다.

필자와는 14년간의 우정이 있는 유일한 동년배 친구중의 한분이다.

兩선생은 일찌기 도시 소동물개업수의사로 개업중 임상진단에 수의방사선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나 대학에서 이렇다 하게 배운것이 없고 현직교수도 임상과 거리가 먼 학문적인 이론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X선의 지식을 얻기위해 大坂의 尚上 義弘 京都의 桑原次原 名古屋의 全体勇 西明石의 山本尚毅 蓄 課代의 도움으로 일본수의방사선학회를 창립하고 Journal of the Japanese Veterinary Radiology Society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국에 국내회원만도 1000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이 주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진료하는 개업수의사가 교직의 수의사에 의해 무시되었으나 지금은 일본 수의학계에서도 이들의 학구열과 주장에 동조하는 대학교수도 생겨 앞으로는 일본 수의사회를 위해 잘 융화될 것이다.

이 연구회에서는 JOURNAL발간외에도 미국의 여러대학과 연락하여 교재가 되는 좋은 Slide를 복사하고 새로운 책은 번역하여 자기회의 회원이외에도 자료가 필요한 모든 수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양질의 교재를 배부할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여 전국적으로 LLL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이들은 자기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뛰고 있으며 자주 해외에 있는 외국수의과대학 연구실에 가서 몇개월씩 공부하고 돌아와서 후배양성에 열과 정을 쏟으며 앞으로는 방사선연구회 회원중 실력이 있고 연구심이 강한 회원을 회비로 1명씩 2~3년 코-스로 유학보내어 수료와 동시 고국에 돌아와서 회원에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란다.

개업수의사로서 동물진료만이라도 일반에게 손색이 없는 자질향상을 위해 방사선학회 연사

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네 일본 소동물 개업의를 위해 그들의 진로기술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일본 수의방사선학연구회는 전국연락 사무국을 松原哲舟의 병원인 BERKELEY ANIMAL HOSPITAL (〒670 兵庫県 姫路市 伊伝居 馬場先 75-15)에 두고 1976년에 창립되었으며 전국을 7개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대표간사를 1명씩 두고 각현에는 현대포 간사를 두어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각현 독자적으로 수시 세미나를 열고 서로 도와주며 그 결과를 그때 그때 회로시에 있는 사무국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는 대표간사들로 구성되며 연구회의 중요안건이나 결정사항과 회계보고는 회지인 JOURNAL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찾아간 바 구레동물병원은 비록 후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갖출것은 다 갖춘 현대식건물로서 인접건물들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서남향의 새로운 건물이다. 이 건물이 철저히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은 자색 벽에 스텐레스창으로 구성된 2층스라부 건물로서 현관 위에는 주석으로 조그맣게 동물병원명이 그리고 바로 아래에 영자로 표기된 동물병원명이 있다.

도로변에서 병원현관까지는 병원 건물 높이의 약 1.5배이고 이 면적의 건물쪽 반은 잔디밭이고 도로쪽 반은 아스팔트를 깐 주차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물중앙에 위치한 현관은 넓은 두장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니 5평 넓이의 공간이 있고 맞은편으로 조그맣한 울타리가 L형으로 우측코너를 막은 푸른드가 있고 그안에는 하얀 까운을 입은 한 아가씨가 앉아서 책을 보다가 얼른 일어나며 인사를 정중하게 한다.

얼룩티하나 보이지 않은 반들거리는 바닥과 흰색천장에 크림색벽은 더욱 청결감은 돋보이게 한다. 에어컨이 어디에서 시원한 바람을 보내오는지 상쾌감을 주는 微風은 초조했던 우리 일행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수부아가씨의 인터폰으로 현 바구레동물 병원의 원장이며 일본 방사선학연구회지의 편집

을 돕고 있는 新田 寿美代양을 수출하여 호출 만나더니 松原선생은 어제부터 LLL세미나 관계로 회의장소인 京都 국제Hotel에 가계시다고 말하며 몹시 未安해 하고 섭섭해 하는데 마침 놀러온 松原부인과 어린딸을 만날수가 있었다.

松原부인은 부군인 松原선생과 작년 방한시 李孝春 회장의 소개로 일행중의 第一 동물병원장인 趙秉河원장과는 구면이어서 몹시 반가와 했다. 그때 松原부부는 배낭을 지고 걸어서 동해안과 남해안을 여행한 역척 부부이다.

인사소개후 병원내를 안내받았는데 현관에서 오른쪽에 있는 방은 도서실겸 모임장소인것 같은데 방크기는 약 5평정도로 비교적 밝은 방으로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되어 깨끗한 신간서적이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문쪽으로 교회용 연탄이 있고 두꺼운 바이블이 놓여 있다.

이방에 있는 철판과 열서너개의 의자로 봐서 이곳에서 소규모의 모임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연구논문을 토의하는가 보

다. 다음 현관왼쪽은 응접실로써 몇가지 장식품과 꽃 그림틀 그리고 응접실용 세트 1조가 영국산 붉은 주단위에 얹전하게 놓여있고 그뒷방은 정리가 잘된 약제실, 진료실 있는 방이고 다음방이 수술실이며 수술실에서 마루 건너편(바로 프론트 뒷쪽)이 X-ray실이고 이방뒤가 처치실이며 이뒤에 조그맣한 입원실이 있고 아울러 화장실과 2층 주택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대체로 여러가지 기능별로 방들이 독립되어 있으며 진료나 수술을 하기에 수의사의 수고가 적게 들도록 꾸며져 있으나 최소한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병원 카운타에는 犬用の 의료보험카-드가 놓여 있는것을 보았고 병원도착 10명부터 12시까지 2시간사이 아무런 환측도 오지 않았고 입원실 역시 텅텅 비어 있다는것은 이 병원이 많은 환측을 보지않고 생각컨데 극히 소수의 애견을 주로 다루는 특수한 병원일 것이다.

이만한 건물이나 병원시설은 일본내에서도 특 A급으로 꼽을수 있고 松原선생의 자기병원 자랑도 결코 오만이 아니며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또 병원신축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은 일본 임상수의계를 위해 딱이나 다행한 일이며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松原선생의 노력은 높히 평가할만 하다.

아직 한국 수의계에서도 松原선생같은 헌신적 인물이 나오길 고대한다.

기존의 조직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몇몇 동지를 규합하여 오직 실력으로 헌신하는 松原 선생의 전도에 광명의 날이 하루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병원문을 나섰다.

다음은 바구레동물병원 新田원장의 차로 姫路에 있는 동물병원 몇개처를 안내 받았다.

姫路의 수의사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高瀬수의과는 폭 6mm정도의 소로에 위치한 2층집으로 1층이 병원인데 반인 4평 정도는 차고겸현관이며 이곳에 90cc짜리 오도바이가 한대 주차되어 있고 차고에서 들어가는 진료실도 약 4평 정도이나 중앙에 큰 책상 2개가 있고 창과 출입문을 제외한 벽은 모조리 책과 약상자로 쌓여 있으며 2개의 책상위에도 약이 하나 가득 쌓여 있는것은 필자의 어지럽고 복잡한 책상보다 한결음 더 앞섰다.

高瀬회장은 60세를 바라보는 뚱뚱하고 중키에 운유한 얼굴 모습에 부드러움이 넘쳐 보였다. 그날 2시에 이사회가 있다하여 얼마 대화를 못하고 6시에 이곳 수의사회 간부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며 서로의 친선과 수의기술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高瀬회장의 가족은 부인과 단 두분이 2층은 살림집이고 병원도 손수 혼자 보시고 계셨다.

다음에 간 田中수의과 병원은 신축하지 37일 밖에 안되는 병원으로 이름도 田中동물병원으로 고쳤고 부자가 수의사이며 넓은 주차장은 승용차가 20여대나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에 아스팔트를 깔아냈다. 병원은 단층이나 넓은 면적을 자유롭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여 각각 진찰실 수술실 처치실 X선실 조제실 실험실 입원실 등을 만들었는데 방마다 등수가 5~7개 짜리 무영등을 달아 놓았고 넓은 입원실에는 10여두의 입원개가 있었으며 이중 3두는 수술후 (C-Section × 2 子宮蓄膿症 × 1) 치료중인 것

이다.

田中원장 말로는 조수가 2명 있다고 말하나 역시 조수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田中씨 주택은 과거의 병원은 조수들의 숙소로 그리고 원장실은 병원부근에 있는 단층 양옥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에는 수의사의 직업을 2대 3대대를 잇는 원장이 많이 생기며 부부가 혹은 형제가 다같이 수의사가 되어 한지방에서 협력 동일한 병원을 경영하는 곳이 차차로 많이 생기고 있다.

다음은 동경의 守部박사 小田박사와 같이 수의사로 厩科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룡동물병원의 朝倉 宋一郎박사를 소개한다. 그 당시 개업 15년으로 39세의 젊음이 넘친 학자형 미남원장은 작은 병원에 조수 수의사를 2명이나 거느린 당당한 원장이며 일본전국에서 알아주는 厩科 전문의로 학술지에도 심심치 않게 어려운 병예를 연구발표하고 있다.

이 병원의 특색은 안부수술을 위한 안과수술실과 안과전용 X-ray장치(미국서 직수입)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것과 같은 특수기계뿐만 아니라 그 시설장치면에서도 필자가 알고 있는 서울의 유명한 몇몇 사람의 안과전문병원보다 그 시설이 우수한것을 우리 일행은 잘 보았다.

일본 수의사들은 동물병원에 이와같은 값 비싼 고가의 시설은 서슴치않고 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축주들로 부터 불가침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히메지 부근에 있는 동물병원은 최근 지질과 동으로 새로운 신축분이 일고 있으며 병원마다 일본의 대도시병원과도 같이 X선촬영기, 흡입마취기, 고주파스케라, PH Meter 고성능현미경등 여러가지의 새로운 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원장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각종 세미나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松原哲舟선생은 일본에서 최근에 지은 깨끗한 미국식 병원을 볼려면 자기가 사는 히메지에 와서 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다음은 京都에서의 LLL세미나 消息)